

투데이 칼럼

마이산 케이블카 꼭 설치돼야

아 무리 유명한 산일지라도 높은 산 등성이를 사람들이 올라 가려면 힘이 들어 노인층이나 장애인, 어린이들은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은 하나의 꿈 일 뿐이다. 그래서 각 유명산에는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고, 전북에도 정읍 내장산과 완주 대둔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어 이곳에서 케이블카를 타본 사람이 안 타본 사람보다 훨씬 많으리라 생각한다.

내장산의 케이블카는 가을 단풍철이면 사람들이 많이 발 딛고 돌고 다니다가 있다.

심지어 서울에서 부산에서 이곳 광주에서도 찾는 사람이 무척 많다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다.

완주군 대둔산에 있는 케이블카 역시 지금은 전북 사람들보다 서울, 경기, 충청도, 경북에서 조차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대둔산 케이블카는 대둔산뿐만 아니라 충남 논산에서도 케이블카를 설치해 놓아 봄, 여름, 가을이면 그



우 태 만
지방부진안주재국 국장

아말로 관광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관광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이다.

관광객들의 식사는 대부분 케이블카 근처에서 사먹기 마련이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품도 선전이 되고 잘 팔려 이 역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북의 등부 산악지역인 진안군은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를 놓고 일부 정치인과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 안타깝다.

물론 마이산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건 케이블카를 설치하는데 찬성하는 쪽도 있고 무조건 반대하는 쪽도 있기 마련이다.

그때도 지역경제를 생각해 계획이 세워지면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코 추진 쪽으로 이어져 왔던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진안군 역시 지역발전과 위해서는 마이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진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후세를 위해서도 장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서해안의 새만금 사

업을 보더라도 한 때 일부 종교인과 환경단체들이 개발 반대 운동을 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래를 생각해 반대를 무릅쓰고 건설해 지금도 발전의 탭포를 늦추지 않고 있는 걸 직시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케이블카 설치하는 마이산뿐만 아니라 강원도 양양 설악산 케이블카와 경남, 산청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 중인데 양양군은 군의장은 강원도민일보에 케이블카 설치 당위성을 기고하여 양양군을 적극 돕고 있다.

산청군의회는 군비를 확보해 주겠다는 확인서를 환경부에 보내는 등 군과 의회가 지역 개발과 경제 살리기에 팔팔 뭉쳐 있다.

그러나 진안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하는 적극 협조해야 할 김현철 도원일이 반대하고 있고, 군의회는 방관자적 입장인 듯 보여, 양양군과 산청군의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설

삼락농정 탄력 소식에 기대 크다

전북도의 삼락농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소식이다. 지난 11월, 중앙공모사업에서 8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78억7천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8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농생명분야의 사업이라서 앞으로 삼락 농정이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기대가 된다. 또 지사가 예전에 도정 방향을 밝혔을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몰입하겠다는 농업분야와 관광분야와 탄소분야 등 3대 핵심 과제를 밝힌 것이 다시 생각나는 지금이다.

그 세 분야는 어느 게 덜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런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고 그 누가 굳이 물어온다면 아무래도 농업 쪽이다. 왜하면 우리 전북 지역은 전통적으로 오랜 농도인 데다 지금도 많은 농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북도는 이런저런 농정 구상을 발표하면서 농민과 함께 하고 있음을 알렸다. 삼락농정도 그 중의 하나이다. 전북도가 말하는 삼락농정이란 전북도가 발표한 그대로이다. '보람 찾는 농민' '제 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이 그 목표이다.

삼락농정은 도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다. 그런데 본보는 전북도의 삼락농정 비전에 반색하면서도 우려했던 게 있다. 도내 농가들의 현실을 보면 삼락농정의 실현이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니다. 오늘날 농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갈수록 쇠락의 길을 거듭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농사에 보람을 찾으려는 이가 드물고, 농산물이 소비 시장에서 제 값을 받는 경우도 드물다. 농촌을 찾는 귀농인이 드문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삼락농정' 비전에 계속해서 충실해야 한다.

전북도가 중앙공모사업에 응모해 국비 78억7천만 원을 미리 확보해둔 것도 잘한 일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삼락농정 전체의 규모를 생각할 때 그 정도의 액수는 코리끼의 비스킷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전북도의 삼락농정의 목표는 갈 길이 멀다. 이번의 성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농생명 산업 분야 쪽에 비중이 많이 실렸다는 점일 것이다. 전북도는 삼락농정이 도정 최우선 과제라고 발표했으므로 농가에 실익되는 쪽으로 과감한 행보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이다.

독자제언

도로 위 블랙아이스 주의보

요즘 밤낮으로 큰 일교차 때문에 도로가 얼었다 녹았다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양양고속도로에서 블랙아이스로 인해 13중 추돌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는 전날 밤 내린 비가 얼어 일면 도로 위에 '블랙아이스'가 형성되면서 차량이 미끄러져 발생한 것으로, '블랙아이스'란, 검은색 아스팔트 도로 위에 살얼음이 끼면서 빙판같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

요즘 같은 날씨에 운전자들의 육안으로는 쉽게 구별되지 않아 블랙아이스가 형성된 도로 위를 운전할 때에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갑자기 차가 미끄러짐을 느껴 본인도 모르게 급제동을 하면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속도를 낮춰 운전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차량

점검은 필수이다. 스노우타이어로 교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공기압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연쇄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도록 하자.

겨울철에는 평소보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다.

특히나 눈이 오는 경우에 도로가 미끄러져 초보 운전자 뿐 아니라 운전 경력이 많은 운전자의 경우에도 순간 방향하여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 차량이 회전하거나, 가드레일 등 주위 건물물 향해 돌진 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전할 때에는 서두르지 말고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평소애 숙지하여 몸소 실천하도록 하자.

구보빈진안경찰서 경무과 순경

독자제언

우리아이 미아 방지하는 사진지문등록제도

우리는 뉴스에서 실종사건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는데, 아동 실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5년 아동 실종 신고는 2만808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에 60명, 1시간에 2.5명 수준이다.

이 가운데 신고 이후에도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장기 실종 아동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실종아동사건에 있어서 '골든타임(golden time)'이 존재한다.

아이가 실종된 지 12시간 이내에 발견하지 못하면 발견 확률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실종사건 발생 시 12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한해 실종아동의 수는 약 2만여명, 그 중에서도 3개월이 지나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아동의 수는 한해 약 600여명에 이른다.

이러한 실종아동 방지를 위해 경찰

은 2012년 7월 1일부터 사진지문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지문등록제도란 아동 등이 실종 되었을 때를 대비해 경찰청 시스템에 미리 아이의 지문과 사진, 연락처, 생년월일, 신체적 특징 등을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히 발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 장애인, 치매 노인이며 지문 등록 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인터넷 안전 Dream(www.safe182.gokr)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문은 방문하여 등록해야 한다.)

우리아이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소중한 자녀를 위해 미리미리 아이의 지문을 사전 등록하여 단일의 상황에 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빅재원 전북경찰청 기동대 순경

전주시는 청년 일자리 마련에 힘써야

전주시는 청년 일자리 마련에 힘써야겠다. 전국의 취업률이 형편없는 중에 전주시의 경우가 심각하다. 통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의 시 단위 도시들 중에서도 고용률이 낮은 걸로 나와 있다.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좋은 상위 도시들과 비교해 15%p나 차이가 난다. 전주시에 촉구한다. 청년 취업 확대 방안이 있어야겠다.

전주시는 청년 고용 확대 방안을 조단간에 내놓아야 한다. 취업률이 전국에서 밑바닥 수준인데 손을 놓고 있다면 말이 안 된다. 그게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해선 곤란하다. 고용 활성화 분위기를 진작시키려고 애써야 한다. 도내에서 가장 큰 전주시가 죽을 수고 있으니 도내의 다른 시군의 청년 취업이 잘 될 턱이 없다.

전주시는 청년 취업 확대 방안을 위해서 고민해야 한다. 고용도 없고 경제성장도 없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미취업자로 있는데 전혀 반감지 않은 현상이다.

그리고 여기 말이 나왔으니 말하는 데 청년 일자리가 예전보다 못하다. 일자리가 늘어나 할 판에 오히려 줄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고용률이 전국의 밑바닥 수준이니 일자리가 창출돼도 그게 비정규직 아니면 시간제 일자리 일색이다. 비정규나 시간제 일자리로 할 일을 다쳤노라고 말해선 안 된다. 일자리가 없는 이들은 희망을 가릴래야 가릴 수가 없다. 전주시는 청년들의 입장을 역사사지해야 한다.

고용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은 한 두 번 시도해보고 말 성질의 것이 아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취업확대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기업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지적이다. 전북도가 전국 꼴찌 수준의 고용 성취표를 보여주더니 전주시마저 꼴찌 수준의 성취표를 보여주고 있음은 말이 안 된다. 지금의 이 을씨년스러운 현실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전주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